문학은 감이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수능 문학은 작품을 이해하는 감,
애매한 선택지 중 정답을 골라내는 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요.

하지만 모두 틀린 말입니다.
그동안 모두가 문학에서 '감'을 강조했던 이유는
아무도 문학 공부 방법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능 문학은 주어진 작품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찾아
확실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철저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능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문학의 모든 지문과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문학 갈래별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독해 공식을 만들고
대표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특강을 수록했습니다.

이제 자이스토리와 함께라면,
누구나 수능 문학을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감'이 아닌 논리적이고 명쾌한 '독해 공식'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국어 **1**등급을 경험하세요.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9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2		월 일	월 일
2	13~25		월 일	월 일
3	26~38		월 일	월 일
4	39~53(+어휘)		월 일	월 일
5	B 01~15		월 일	월 일
6	16~29(+어휘)		월 일	월 일
7	C 01~09		월 일	월 일
8	10~22		월 일	월 일
9	23~36		월 일	월 일
10	37~47		월 일	월 일
11	48~60		월 일	월 일
12	61~73		월 일	월 일
13	74~86		월 일	월 일
14	87~95(+어휘)		월 일	월 일
15	D 01~15		월 일	월 일
16	16~31		월 일	월 일
17	32~46		월 일	월 일
18	47~61		월 일	월 일
19	62~79		월 일	월 일
20	80~90(+어휘)		월 일	월 일
21	E 01~14		월 일	월 일
22	15~30		월 일	월 일
23	31~46		월 일	월 일
24	47~61		월 일	월 일
25	62~73		월 일	월 일
26	74~84		월 일	월 일
27	85~98		월 일	월 일
28	99~108(+어휘)		월 일	월 일
29	F 01~14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김효진 평택 현화고등학교
문선희 춘천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이세영 수원 수일고등학교
이혜정 서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
최덕수 대구 성산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특별 감수진]

김상언 창원 사파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한보람 대구 한보람국어
지효영 수원 이의고등학교
노정은 대전 대성고등학교
박지윤 고양 일산국제컨벤션 고등학교
박현규 서울 영훈고등학교
이가윤 청주 서원고등학교
이정선 서울 대성고등학교
정한겸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
정희진 광명 소하고등학교
조상경 파주 운정고등학교
최한나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감수진]

강병석 서울 옳:바른학원
강수진 진도 강쌤국어
강연구 춘천 페르마학원
강예지 양산 강예지국어교습소
강지수 부산 해운대수수능국어
곽동훈 서울 곽동훈국어학당
권영근 김해 장유바른개념24학원
김기은 대구 낭중지추국어논술
김도연 서울 사과나무학원
김도완 광주 도완국어학원
김미정 서울 김미정국어
김민정 고양 박정용국어학원
김성곤 구미 김성곤대입국어학원
김요셉 서울 대치SEP국어
김유라 성남 분당두각학원
김현아 부산 하이엔드국영수학원
김휘승 서산 고수학원
나 단 서울 김종길국어논술학원
박경선 남양주 덕소성원학원
박동민 인천 역전타에듀학원
박상준 부산 필(必)통(通)국어학원
박선아 부산 대신이룸학원
박수영 서울 은평대치국어학원
박유빈 세종 국어의 보람
박유진 성남 분당(참 아름다운언어연구소)
박정선 서울 송파가온누리국어학원
박태순 서울 참좋은학원
배성현 인천 국어논술자신감
백단비 고양 일산대박학원
성혜련 안양 공즐학원
손우진 서울 목동김종길국어학원
신혜영 부산 범일수오재국어
심수현 서울 메가스터디 러셀
양지은 서울 흐름과파도글쓰는서재국어
오지윤 부산 동래미나리국어논술
오지훈 서울 오지훈국어정원
유시준 서울 깡수학과학국어학원
유영삼 대전 여름수국어전문학원
이기용 연천 대광중학교
이승준 창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이연희 울산 에이플러스학원
이원정 서산 이원정국어전문학원
이은영 고양 일산이은영국어학원
이주희 서울 문영여자고등학교
이현화 양주 세븐스텝어학원
이혜지 대구 동중학교
임지혜 거제 파스칼에듀학원
장기윤 구미 장쌤국어입시학원
장연희 대구 규장각국어교습소
전이수 부천 메가스터디러셀
정난희 광주 도완국어학원
정민경 아산 가온국어교습소
정서유 고양 바른공부학원
정서은 부산 동래빛,나는1교시정서은국어
정승효 성남 분당두각학원
정지윤 전주 지양과지향국어학원
제달성 대구 봄날국어
조진희 대구 틀을잡는국어학원
조효준 천안 조효준국어학원
주설호 용인 SLB입시학원
최복규 서울 기승전국어
최소형 하남 꿈자락국어
최원석 안성 고려대최쌤
최윤기 양산 혜윤국어논술학원
최현애 화성 플랜A입시학원
최혜정 광주 이루다전문학원
한광희 세종 한쌤국어
한솔기 세종 너희가꽃이다입시학원
허성완 평택 일등급국어
홍성유 의정부 이엠학원

차 례

A 현대시 1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4

- 꽃피는 시절(이성복), 저수지(권정우)

1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18

- 현 위의 인생(정끝별), 뿌리로부터(나희덕)
- 절정(이육사), 생명(김남조)
- 거울(이상), 가시나무(천양희)
- 열매(오세영), 대장간의 유혹(김광규)
- 부재(김춘수), 삶을 살아낸다는 건(황동규)
- 겨울밤의 꿈(김춘수), 개봉동과 장미(오규원)
- 다시 봄이 왔다(이성복), 벽(김기택)
- 하단에서(박목월), 감나무(함민복)

2 추억과 회상, 그리움을 담은 시 30

- 소년(윤동주), 봄날(김기택)
- 바람의 집-겨울 판화(기형도), 씨앗을 받으며(허영자)
- 달을 보며(한용운), 이사, 악양(박남준)

3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34

- 해바라기 씨(정지용), 낙타(신경림)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복효근)
- 수유나무에 대하여(신경림), 멸치(김기택)
- 주머니 속의 바다(정일근), 속리산에서(나희덕)
- 항구(이용악), 희망의 거처(이정록)

어휘 + 개념어 TEST 41

B 고전 시가 4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44

- 전가팔곡(이휘일)

1 가사 47

- 상사별곡(작자 미상)
- 규원가(허난설헌)

2 시조 50

- 두터비 파리를 물고(작자 미상), 매화(권섭)
- 쑴에 단니는 길히(이명한), ᄇᆞ롬도 쉬여 넘는(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작자 미상)

3 복합 유형 53

- 만전춘별사(작자 미상), 규원가(허난설헌) [고려 가요+가사]
- 고시(정약용), 시집살이 노래(작자 미상) [한시+민요]
- 저곡전가팔곡(이휘일), 용추유영가(정훈) [시조+가사]
- 속미인곡(정철), 사노친곡(이담명) [가사+시조]

어휘 + 개념어 TEST 60

동아리 소개 / 서울대 Caffe人 62

C 시 복합 및 수필 6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64

- 죽창곡(이긍익), 노마설(홍우원)

1 현대시 + 고전 시가 복합 69

-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11(오규원), 푸른 밤(나희덕), 속미인곡(정철)

2 현대시 + 고전 수필 복합 71

- 청산도(박두진), 숲으로 된 성벽(기형도), 지지헌기(이규보)
-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2(서정주), 그리운 이 그리워(오세영), 함해당기(이종휘)

3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복합 76

- 만보(이황), 별똥 떨어진 데(윤동주)
- 노계가(박인로), 자연과 문헌(이태준)
- 북새곡(구강), 귀산음(신교), 엿장수 생각(안도현)
- 강호구가(나위소), 백상루별곡(이현), 오월의 산골짜기(김유정)
- 이화우 흩뿌릴 제(계랑), 사미인곡(정철), 무소유(법정)
- 도산십이곡(이황), 뒤지가 진적(이희승)
- 독락당(박인로), 방우산장기(조지훈)

4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복합 91

- 금루사(민우룡), 그리운 외손녀(김창흡)
- 매호별곡(조우인), 양저설(어유붕)
- 탐라별곡(정언유), 안화설(채제공)
- 율리유곡(김광욱), 육우당기(윤휴)
- 풍계육가(이정), 포화옥기(이학규)
- 관서별곡(백광홍), 동행기(임춘)
- 한 손에 막대 잡고(우탁), 임이 오마 하거늘(작자 미상), 백리금파에서(김상용)
- 부벽루(이색), 산중잡곡(김득연), 능양시집서(박지원)

5 시 + 설명문 복합 110

-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 속미인곡(정철), 목동문답가(임유후)
- 수라(백석), 까치밥(송수권), 시적 공간의 특성과 기능
- 시에 나타난 운명론적 세계관,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탄궁가(정훈)

어휘 + 개념어 TEST 117

D 현대 소설 119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20
- 어머니(한승원)

1 광복 이전 124
- 고향(이태준)
- 점경(이태준)
- 촌뜨기(이태원)

2 광복 이후 ~ 산업화 131
- 청산댁(조정래)
- 효풍(염상섭)
- 노을(김원일)
- 손풍금(김원일)

3 경제 성장과 그 이면 141
- 매일 죽는 사람(조해일)
-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조세희)
- 카메라와 워커(박완서)
-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 줄자(황석영)

4 민주주의의 발전 153
- 삼각돛(서영은)
-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김주영)
- 철쭉제(문순태)
- 아저씨의 훈장(박완서)

5 개인주의와 세계화 163
- 론도(성석제)
- 노찬성과 예반(김애란)
-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문순태)
- 모순(양귀자)
- 아득한 나날(김원우)
- 저건 사람도 아니다(서유미)
- 티타임을 위하여(이선)

어휘 + 개념어 TEST 179

E 고전 소설 181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82
- 이생규장전(김시습)

1 영웅 · 군담 소설 187
- 낙성비룡(작자 미상)
- 이학사전(작자 미상)
- 임경업전(작자 미상)
- 유문성전(작자 미상)
- 이대봉전(작자 미상)
- 소대성전(작자 미상)
- 진성운전(작자 미상)
- 유충렬전(작자 미상)
- 월왕전(작자 미상)
- 황운전(작자 미상)
- 음양옥지환(작자 미상)

2 가정 · 애정 소설 211
- 옥란전(작자 미상)
- 유씨전(작자 미상)
- 옥소선(임방)
- 옥단춘전(작자 미상)
- 권익중전(작자 미상)
- 숙향전(작자 미상)
- 소학사전(작자 미상)
- 백학선전(작자 미상)
- 월영낭자전(작자 미상)
- 주봉전(작자 미상)
- 강릉추월전(작자 미상)
- 왕경룡전(작자 미상)

3 몽유 소설 238
- 강도몽유록(작자 미상)
- 구운몽(작자 미상)

4 풍자 및 우화 소설 242
- 두껍전(작자 미상)
- 민옹전(박지원)
- 두껍전(작자 미상)

어휘 + 개념어 TEST 248

동아리 소개 / 고려대 KUAAA 250

F 극 문학, 소설 복합 251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252
- 집으로(이정향 극본)

1 희곡, 시나리오 256
- 전하(신명순)
- 염쟁이 유씨(김인경)

2 극 + 소설 복합 260
- 날개 또는 수갑(윤흥길),
  불꽃(선우휘 원작, 이은성 · 윤삼육 각색)

어휘 + 개념어 TEST 264

문제를 풀면서 어휘+개념어 총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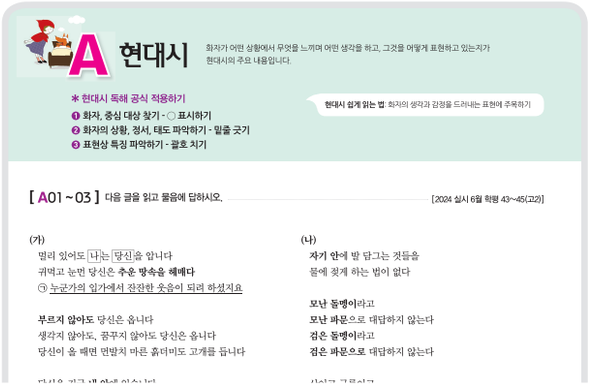
어휘 총정리 266

빠른 정답 찾기 280

독해 공식+지문·문제 특강으로 쉽고 빠르게 국어 1등급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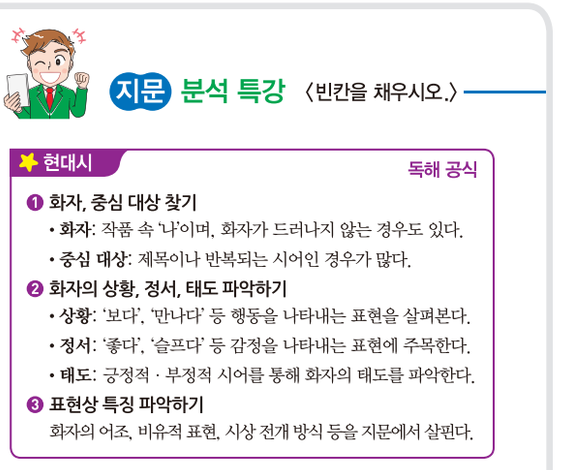
1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갈래별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문학, 수필의 독해 공식으로 수능 문학의 모든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 **문학 갈래 쉽게 읽는 법**: 갈래별로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학습의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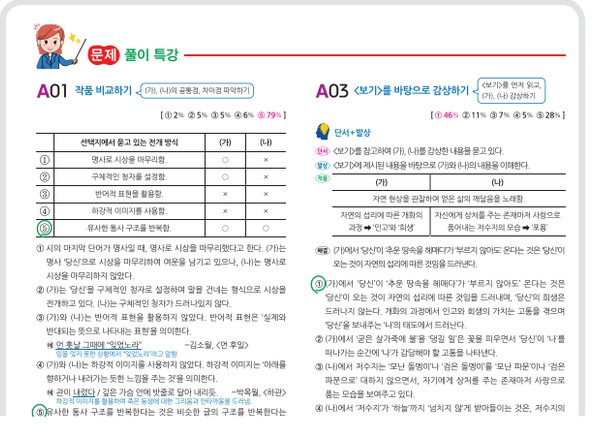
2 지문 분석 특강으로 독해 공식 적용 훈련

- 갈래별 독해 공식을 기출 문제에 실제 적용하며 작품을 독해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지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문제 풀이 특강으로 갈래별 대표 유형 정복!

- 갈래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특강으로 정리했습니다.
-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를 근거와 해설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4 내신 + 수능 대비 기출문제

- **내신+수능 대비 기출문제**: 최신 고2 학력평가 문항으로 완벽하게 훈련하면 수능 국어 1등급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대시**: 주제별로 분류
- **고전 시가**: 시 형식으로 분류
- **현대 소설**: 시대순으로 분류
- **고전 소설**: 주제별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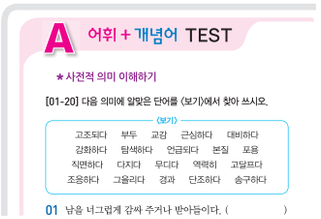
● **제한 시간**: 수능 실전에서 한 지문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

● **출처 표시**
예) 2024 실시 3월 학평(고2): 2024년 3월에 실시한 고2 학력평가

● **난이도**: ✪ 1등급 대비, ✿✿✿ – 상, ✿✿❀ – 중, ✿❀❀ – 하

5 독해력을 높이는 어휘 + 개념어 TEST

갈래별 학습이 끝난 후에는 관련 어휘를 테스트하며 복습해 보세요.



6 어휘 실력 보충 – 어휘 + 개념어 총정리

지문 · 문제를 읽다 모르는 어휘 · 개념어가 나오면 어휘 풀이를 참고하세요.



7 입체 첨삭 해설!

시

❶ 화자, 중심 대상
시의 화자, 중심 대상에 표시했습니다.

❷ 상황, 정서, 태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비롯해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❸ 표현상 특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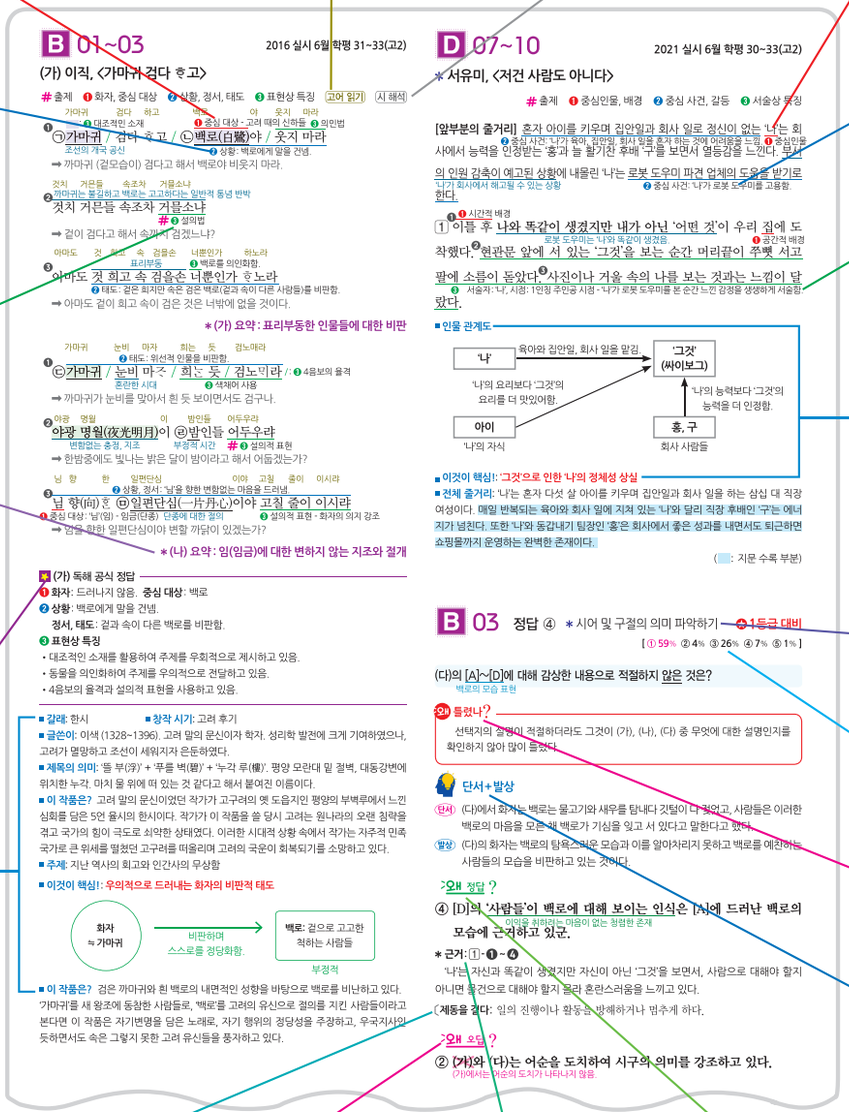
★ 연 요약
각 연의 내용을 요약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독해 공식 정답
각 갈래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 작품 설명
문학 작품의 갈래, 글쓴이,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주제, 창작 시기, 이것이 핵심! 등 제시된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고어 읽기
고어(옛 한글)의 소리를 현대어로 표기하였습니다.

시 해석
시의 내용을 쉽게 풀이했습니다.



문제 어휘 + 개념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어휘 및 개념어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제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설

❶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❷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❸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작품 설명
소설의 장면 요약,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와 지문 수록 부분, 이것이 핵심! 등을 통해 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문제 유형 분석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 선택률
학생들이 헷갈렸던 선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선지별 선택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항 배열 및 구성 [기출 389문항, 어휘+개념어 테스트 348문항]

❶ 최신 5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11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우수 문항 선별 수록 ┐ 389문항

- 최신 5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 내신 · 학력평가 · 수능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11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 우수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❷ 최신 유형에 대비한 갈래별 단원 구분

- 최신 학력평가 문학 유형을 고려하여 현대시는 주제별, 현대 소설은 시대별, 고전 시가, 시 · 수필 복합 세트, 극 · 소설 복합 세트는 세부 갈래별로 단원을 구분하였습니다.

❸ 어휘+개념어 총정리(표제어 643개)

- 지문과 문제 속 어휘와 개념어의 뜻을 모두 모아 예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지문을 읽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가 있다면, 어휘 + 개념어 총정리에서 그 뜻과 용례를 확인해 보세요.

❹ 문학 독해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어휘+개념어 테스트 수록 (348문항)

- 갈래별 빈출 주요 어휘를 점검할 수 있는 '어휘 + 개념어 TEST'를 단원마다 구성하였습니다.

[수능 국어 문학 완성 문항 구성표] – 고2 학력평가 문학 문항

실시 연도	3월	6월	9월	11월	문항 수	비고
2024	15	15	15		45	
2023	15	15	15	15	60	
2022	15	15	15	15	60	
2021	15	15	15	15	60	
2020	15	15	15	15	60	
2019	8	12	15	7	42	• 최신 5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수록
2018	4	7	11	12	34	• 11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우수 문항 선별 수록
2017			3	7	10	
2016	3	6	3		12	
2015		3			3	
2014				3	3	
총 문항 수					389	

수록 작품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순 수록)

〈현대시〉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43~45	A 48~50	주머니속의바다(정일근)
2024 실시 9월 학평 43~45	A 48~50	속리산에서(나희덕)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01~03	꽃피는 시절(이성복)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01~03	저수지(권정우)
2024 실시 3월 학평 34~38	C 10~14	청산도(박두진)
2024 실시 3월 학평 34~38	C 10~14	숲으로 된 성벽(기형도)
2023 실시 11월 학평 31~33	A 26~28	하단에서(박목월)
2023 실시 11월 학평 31~33	A 26~28	감나무(함민복)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A 39~41	낙타(신경림)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A 39~41	해바라기 씨(정지용)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04~06	뿌리로부터(나희덕)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04~06	현 위의 인생(정끝별)
2023 실시 3월 학평 43~45	A 29~31	봄날(김기택)
2023 실시 3월 학평 43~45	A 29~31	소년(윤동주)
2022 실시 11월 학평 39~41	A 16~18	부재(김춘수)
2022 실시 11월 학평 39~41	A 16~18	삶을 살아낸다는 건(황동규)
2022 실시 9월 학평 25~27	A 19~21	개봉동과 장미(오규원)
2022 실시 9월 학평 25~27	A 19~21	겨울밤의 꿈(김춘수)
2022 실시 6월 학평 43~45	A 10~12	거울(이상)
2022 실시 6월 학평 43~45	A 10~12	가시나무(천양희)
2022 실시 3월 학평 35~37	A 42~44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2022 실시 3월 학평 35~37	A 42~44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복효근)
2021 실시 11월 학평 20~22	A 51~53	항구(이용악)
2021 실시 11월 학평 20~22	A 51~53	희망의 거처(이정록)
2021 실시 9월 학평 39~42	A 22~25	다시 봄이 왔다(이성복)
2021 실시 9월 학평 39~42	A 22~25	벽(김기택)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13~15	대장간의 유혹(김광규)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13~15	열매(오세영)
2021 실시 3월 학평 19~23	C 91~95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2020 실시 11월 학평 35~37	A 07~09	생명(김남조)
2020 실시 11월 학평 35~37	A 07~09	절정(이육사)
2020 실시 9월 학평 22~25	A 32~35	바람의 집-겨울 판화 1(기형도)
2020 실시 9월 학평 22~25	A 32~35	씨앗을 받으며(허영자)
2020 실시 6월 학평 43~45	A 45~47	멸치(김기택)
2020 실시 6월 학평 43~45	A 45~47	수유나무에 대하여(신경림)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36~38	달을 보며(한용운)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36~38	이사, 악양(박남준)
2019 실시 9월 학평 22~26	C 05~09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오규원)
2019 실시 9월 학평 22~26	C 05~09	푸른 밤(나희덕)
2018 실시 11월 학평 24~27	C 15~18	그리운 이 그리워(오세영)
2018 실시 11월 학평 24~27	C 15~18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 2(서정주)
2018 실시 9월 학평 22~25	C 87~90	까치밥(송수권)
2018 실시 9월 학평 22~25	C 87~90	수라(백석)

〈고전 시가〉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C 48~52	금루사(민우룡)
2024 실시 6월 학평 16~20	C 32~36	강호구가(나위소)
2024 실시 6월 학평 16~20	C 32~36	백상루별곡(이현)
2024 실시 3월 학평 31~33	B 01~03	전가팔곡(이휘일)
2023 실시 11월 학평 38~41	C 57~60	탐라별곡(정언유)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C 19~22	만보(이황)
2023 실시 6월 학평 16~20	C 27~31	귀산음(신교)
2023 실시 6월 학평 16~20	C 27~31	북새곡(구강)
2023 실시 3월 학평 31~34	C 23~26	노계가(박인로)
2022 실시 11월 학평 31~34	C 01~04	죽창곡(이긍익)
2022 실시 9월 학평 38~41	C 70~73	관서별곡(백광홍)
2022 실시 6월 학평 21~25	C 78~82	부벽루(이색)
2022 실시 6월 학평 21~25	C 78~82	산중잡곡(김득연)
2022 실시 3월 학평 16~19	C 74~77	임이 오마 하거늘 ~ (작자 미상)
2022 실시 3월 학평 16~19	C 74~77	한 손에 막대 잡고 ~ (우탁)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C 53~56	매호별곡(조우인)

〈고전 시가〉

2021 실시 9월 학평 16~19	C 40~43	도산십이곡(이황)
2021 실시 6월 학평 26~29	C 61~64	율리유곡(김광욱)
2021 실시 3월 학평 19~23	C 91~95	탄궁가(정훈)
2020 실시 11월 학평 42~45	C 83~86	목동문답가(임유후)
2020 실시 11월 학평 42~45	C 83~86	속미인곡(정철)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B 22~25	용추유영가(정훈)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B 22~25	저곡전가팔곡(이휘일)
2020 실시 6월 학평 21~25	C 65~69	풍계육가(이정)
2020 실시 3월 학평 29~32	C 44~47	독락당(박인로)
2019 실시 9월 학평 22~26	C 05~09	속미인곡(정철)
2019 실시 6월 학평 43~45	B 19~21	고시(정약용)
2019 실시 6월 학평 43~45	B 19~21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26~29	사노친곡(이담명)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26~29	속미인곡(정철)
2018 실시 6월 학평 43~45	C 37~39	사미인곡(정철)
2018 실시 6월 학평 43~45	C 37~39	이화우 흩뿌릴 제(계랑)
2016 실시 9월 학평 33~35	B 16~18	규원가(허난설헌)
2016 실시 9월 학평 33~35	B 16~18	만전춘별사(작자 미상)
2016 실시 3월 학평 41~43	B 10~12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작자 미상)
2016 실시 3월 학평 41~43	B 10~12	매화(권섭)
2015 실시 6월 학평 37~39	B 07~09	규원가(허난설헌)
2014 실시 11월(B) 학평 31~33	B 13~15	상사별곡(작자 미상)
202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3~15	쑴에 단니는 길히(이명한)
202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3~15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작자 미상)
202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3~15	ᄇᆞ롬도 쉬여 넘는 (작자 미상)

〈현대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16~19	D 66~69	론도(성석제)
2024 실시 6월 학평 26~8	D 73~75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문순태)
2024 실시 3월 학평 39~42	D 08~11	점경(이태준)
2023 실시 11월 학평 34~37	D 50~53	삼각돛(서영은)
2023 실시 9월 학평 16~19	D 04~07	고향(이태준)
2023 실시 6월 학평 26~28	D 01~03	어머니(한승원)
2023 실시 3월 학평 35~38	D 32~35	매일 죽는 사람 (조해일)
2022 실시 11월 학평 35~38	D 19~22	효풍(염상섭)
2022 실시 9월 학평 21~24	D 36~39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조세희)
2022 실시 6월 학평 35~37	D 70~72	노찬성과 에반 (김애란)
2022 실시 3월 학평 26~29	D 54~57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김주영)
2021 실시 11월 학평 38~41	D 80~83	아득한 나날(김원우)
2021 실시 9월 학평 35~38	D 76~79	모순(양귀자)
2021 실시 6월 학평 30~33	D 84~87	저건 사람도 아니다 (서유미)
2021 실시 3월 학평 43~45	D 88~90	티타임을 위하여(이선)
2020 실시 11월 학평 38~41	D 58~61	철쭉제(문순태)
2020 실시 9월 학평 26~29	D 40~43	카메라와 워커(박완서)
2020 실시 6월 학평 35~37	D 44~46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2020 실시 3월 학평 21~24	D 12~15	촌뜨기(이태준)
2019 실시 11월 학평 43~45	D 16~18	청산댁(조정래)
2019 실시 9월 학평 39~42	D 23~26	노을(김원일)
2019 실시 6월 학평 20~24	F 10~14	날개 또는 수갑(윤흥길)
2019 실시 3월 학평 34~38	D 27~31	손풍금(김원일)
2018 실시 9월 학평 33~36	D 62~65	아저씨의 훈장(박완서)
2017 실시 11월 학평 34~36	D 47~49	줄자(황석영)

〈고전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25~27	E 05~07	낙성비룡(작자 미상)
2024 실시 6월 학평 34~37	E 39~42	황운전(작자 미상)
2024 실시 3월 학평 43~45	E 47~49	옥란전(작자 미상)
2023 실시 11월 학평 42~45	E 43~46	음양옥지환(작자 미상)
2023 실시 9월 학평 31~34	E 31~34	유충렬전(작자 미상)
2023 실시 6월 학평 39~42	E 70~73	소학사전(작자 미상)
2023 실시 3월 학평 39~42	E 01~04	이생규장전(김시습)
2022 실시 11월 학평 42~45	E 99~102	두껍전(작자 미상)
2022 실시 9월 학평 42~45	E 89~82	왕경룡전(작자 미상)
2022 실시 6월 31~34	E 27~30	진성운전(작자 미상)
2022 실시 3월 학평 42~45	E 78~81	월영낭자전(작자 미상)
2021 실시 11월 학평 34~37	E 50~53	유씨전(작자 미상)
2021 실시 9월 학평 43~45	E 96~98	구운몽(김만중)
2021 실시 6월 학평 34~37	E 58~61	옥단춘전(작자 미상)
2021 실시 3월 학평 28~31	E 35~38	월왕전(작자 미상)
2020 실시 11월 학평 31~34	E 54~57	옥소선(임방)
2020 실시 9월 학평 30~32	E 08~10	이학사전(작자 미상)
2020 실시 6월 학평 31~34	E 19~22	이대봉전(작자 미상)
2020 실시 3월 학평 25~28	E 23~26	소대성전(작자 미상)
2019 실시 11월 학평 39~42	E 62~65	권익중전(작자 미상)
2019 실시 9월 학평 27~29	E 106~108	두껍전(작자 미상)
2019 실시 6월 학평 31~34	E 74~77	백학선전(작자 미상)
2019 실시 3월 학평 39~41	E 103~105	민옹전(박지원)
2018 실시 11월 학평 42~45	E 85~88	강릉추월전(작자 미상)
2018 실시 9월 학평 26~28	E 93~95	강도몽유록(작자 미상)
2018 실시 6월 학평 21~24	E 11~14	임경업전(작자 미상)
2018 실시 3월 학평 29~32	E 66~67	숙향전(작자 미상)
2017 실시 11월 학평 42~45	E 15~18	유문성전(작자 미상)

〈극문학〉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1 실시 3월 학평 16~18	F 04~06	전하(신명순)
2019 실시 9월 학평 43~45	F 01~03	집으로(이정향 극본)
2019 실시 6월 학평 20~24	F 10~14	불꽃(선우휘 원작, 이은성 · 윤삼육 각색)
2016 실시 6월 학평 43~45	F 07~09	염쟁이 유씨(김인경)

〈현대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6월 학평 16~20	C 32~36	오월의 산골짜기(김유정)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C 19~22	별똥 떨어진 데(윤동주)
2023 실시 6월 학평 16~20	C 27~31	엿장수 생각(안도현)
2023 실시 3월 학평 31~34	C 23~26	자연과 문헌(이태준)
2021 실시 9월 학평 16~19	C 40~43	뒤지가 진적(이희승)
2020 실시 3월 학평 29~32	C 44~47	방우산장기(조지훈)

〈고전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C 48~52	그리운 외손녀(김창흡)
2024 실시 3월 학평 34~38	C 10~14	지지헌기(이규보)
2023 실시 11월 학평 38~41	C 57~60	안화설(채제공)
2022 실시 11월 학평 31~34	C 01~04	노마설(홍우원)
2022 실시 9월 학평 38~41	C 70~73	동행기(임춘)
2022 실시 6월 학평 21~25	C 78~82	능양시집서(박지원)
2022 실시 3월 학평 16~19	C 74~77	백리금파에서(김상용)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C 53~56	양저설(어유봉)
2021 실시 6월 학평 62~29	C 61~64	육우당기(윤휴)
2020 실시 6월 학평 21~25	C 65~69	포화옥기(이학규)
2018 실시 11월 학평 24~27	C 15~18	함해당기(이종휘)

문학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을 말합니다.

운문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운율이 느껴지는 글

시, 시조

현대시, 고전 시가

1 화자, 중심대상 찾기

- **화자:** 시속에서 말하는 사람, 나, 우리,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음)
- **중심대상:** 화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기

2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 **정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 **태도:** 화자가 대상에 대해 보이는 자세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반복되는 표현, 독특한 말투, 다른 것에 빗댄 표현 등 파악하기

산문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

소설, 극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

1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찾기
-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2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 주인공을 둘러싼 사건이나 갈등 파악하기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주된 특성 파악하기

수필

수필

1 중심 대상 찾기

-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심이 되는 말 찾기

2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 중심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글쓴이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작품 독해 공식

"자이스토리만의 특별한
작품 독해 공식으로 공부하면
국어 문학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B 고전 시가

1 가사
2 시조
3 복합 유형 • 가사 + 시조
• 가사 + 고려 가요
• 한시 + 민요

★ 고전 시가

상고시대의 고대 가요부터 조선시대의 시조에 이르기까지 개화기 이전의 한국의 시와 노래를 통칭한다. 시대에 따라 정형화된 형식이 나타났다. 고전 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의 형식에 따라 나누어서 수록했다.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고전 시가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3단계 공식으로 어떤 작품이라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다.

고전 시가 독해 공식

❶ 화자, 중심 대상 찾기
❷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❸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고전 시가 문제 유형별 특강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고전 시가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제시했다. 특강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면 고난도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작품 비교하기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2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 찾기

3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 파악하기

4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5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가) 혹은 (나) 감상하기

★ 최신 3개년 고2 학력평가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4	3월	전가팔곡(이휘일)	✲✲
	6월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강호구가(나위소) (나) 백상루별곡(이현) (다) 오월의 산골짜기(김유정)	✲✲
	9월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금루사(민우룡) (나) 그리운 외손녀(김창흡)	✲✲
	11월		
2023	3월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노계가(박인로), (나) 자연과 문헌(이태준)	✲✲
	6월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북새곡(구강), (나) 귀산음(신교) (다) 엿장수 생각(안도현)	✲✲
	9월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만보(이황), (나) 별똥 떨어진 데(윤동주)	✲✲
	11월	(가) 탐라별곡(정언유) (나) 안화설(채제공)	✲✲
2022	3월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한 손에 막대 잡고(우탁), (나) 임이 오마 하거늘(작자 미상), (다) 백리금파에서(김상용)	✲✲
	6월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부벽루(이색), (나) 산중잡곡(김득연), (다) 능양시집서(박지원)	✲✲✲
	9월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관서별곡(백광홍), (나) 동행기(임춘)	✲✲✲
	11월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됨. (가) 죽창곡(이긍익), (나) 노마설(홍우원)	✲✲

★ 최신 출제 경향 및 분석

- 2024년 고2 3월 학평에서는 이휘일의 〈전가팔곡〉이 고전 시가 단독 지문으로 보통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 2024년 고2 6월 학평에서는 현대 수필과 묶여 나위소의 〈강호구가〉와 이현의 〈백상루별곡〉이 출제되었다.
- 2024년 고2 9월 학평에서는 고전 수필과 묶여 민우룡의 〈금우사〉가 출제되었다.
- 최근 학평에서 고전 시가는 수필과 묶여 출제되는 추세이다.
- 한시, 가사, 연시조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출제되므로 평소 다양한 갈래의 고전 시가 작품을 접해 두어야 한다.



B 고전 시가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생각과 감정, 태도를 통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 쉽게 읽는 법: 소리 내어 읽으며 발음이 비슷한 현대어를 떠올려 보기, 화자와 중심 대상 찾기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적용하기

❶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 표시하기 ❷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밑줄 긋기 ❸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괄호 치기

[B01 ~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 실시 3월 학평 31~33(고2)]

세상이 ᄇᆞ린 몸이 밭이랑의 늘거 가니
바깥일 내 모ᄅᆞ고 ᄒᆞᄂᆞᆫ 일 무ᄉᆞ 일인고
이 중의 우국성심은 년풍을 원ᄒᆞ노라 〈제1수 – 원풍〉

새벽 밝아 오자 **지빠귀**가 **소릭** ᄒᆞᆫ다
일어나거라 아ᄒᆡ들아 ㉠ 밭 보러 가자꾸나
밤 ᄉᆞ이 이슬 긔운에 얼마나 기런ᄂᆞᆫ고 ᄒᆞ노라 〈제6수 – 신〉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ᄒᆞ여
ᄇᆡ골ᄂᆞᆫ ㉡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자꾸나
아ᄒᆡ야 ᄒᆞᆫ 그릇 올녀라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제7수 – 오〉

서산에 ᄒᆡ 지고 **풀 끝에 이슬** 난다
호미를 둘러 메고 ᄃᆞᆯ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 중의 즐거운 ᄯᅳᆺ을 닐러 무엇 ᄒᆞ리오 〈제8수 – 석〉

– 이휘일, 〈전가팔곡〉

B01 ✻✻❀

2024 실시 3월 학평 31(고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나열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B02 ✻✻❀

2024 실시 3월 학평 32(고2)

㉠과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내며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②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③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이다.
④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이다.
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다.

B03 ✻✻❀

2024 실시 3월 학평 33(고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은 제6수부터 제8수에서 '새벽 – 낮 – 저녁'의 시간인 '신 – 오 – 석'으로 세분화된다. 각 수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제시된다. 작품 속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은,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① 제6수에서 '새벽'이 밝자 '소릭' 내며 지저귀는 '지빠귀'와 제8수에서 '서산에' 지는 'ᄒᆡ'는 자연물의 모습이 특정 시간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 제7수에서 '보리밥'과 '풀로 끓인 국'을 '제때에' 맞추어 '친히 맛보아 보내'겠다는 화자의 모습은 해당 수의 시간인 낮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을 드러낸다.
③ 제8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 메고 ᄃᆞᆯ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제8수에서 저녁에 '풀 끝에' 난 '이슬'은 제6수의 '밤 ᄉᆞ이 이슬'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작품 속 시간이 자연의 순환에 조응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⑤ 제1수와 제8수에서 종장 첫 부분의 '이 중의'는 각각 '우국성심'과 '즐거운 ᄯᅳᆺ'에 함축된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한 주목을 유도한다.

❖ 정답 및 해설 44 ~ 46p



지문 분석 특강 <빈칸을 채우시오.>

B

1st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 **제목**: '전가팔곡'은 '밭 전(田) + 집 가(家) + 여덟 팔(八) + 노래 곡(曲)', '전가(농촌)'에서 부른 '팔곡(여덟 수의 노래)'이라는 의미이다.
- **B03 <보기> 체크**: <보기>를 통해 <전가팔곡>은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며, 제6수부터 제8수에서 '새벽-낮-저녁'의 시간과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구현한다.

고전 시가 — 독해 공식

❶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는 화자를 가리키며,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전 시가는 글쓴이와 화자가 대부분 일치한다.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❷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핀다.
- **정서**: '좋다',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 · 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비판 · 풍자, 체념(한), 도피 · 염세, 낙천 · 안빈낙도, 찬양, 교훈 등)

❸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시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본다.

예 역설법, 단호한 어조, 수미상관

2nd 윗글에 독해 공식 ❶, ❷, ❸을 적용해 본다.

현대어 풀이

세상에 버려진 몸이 밭이랑에서 늙어 가니
바깥 일은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은 또 무슨 일인가
이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풍년을 원하노라
〈제1수 – 원풍(풍년에 대한 기원)〉

새벽이 돌아와 날이 밝아오니 지빠귀(때까치)가 운다.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밤 사이 이슬 기운에 (곡식들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노라.
〈제6수 – 신(새벽)〉

보리밥 지어 담고 명아주풀로 끓인 국을 준비하여
배곯는 농부들을 제 때에 먹이어라.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직접 맛을 본 후 보내리라.
〈제7수 – 오(낮)〉

서산에 해 지고 풀 끝에 이슬이 맺힌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이 중에 (농사일의) 즐거운 재미를 (남들에게) 말해 무엇하겠는가.
〈제8수 – 석(저녁)〉

❶ 화자, 중심 대상 찾기

<제1수—원풍>의 중장에서 화자 '내(나)'가 나타난다.
화자는 '년풍' 즉 풍년을 바라고 있으므로 중심 대상은 '년풍'이다.

- **화자**: '나'
- **중심 대상**: '년풍'

❷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속세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원에서 늙어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풍년을 원하고 있다. 풍년을 원하는 화자는 밭과 (1) _____ 에게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다. 새벽부터 밭을 돌보고 농부들에게 점심을 먹인 화자는 해가 지자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2) _____ 을/를 느낀다.

- **상황**: '세상(속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원에서 늙어 가고 있음. 농부들에게 때에 맞춰 점심을 먹이고자 함. 해가 지자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감.
- **정서, 태도**: 나라를 걱정하며 풍년을 원하는 화자의 소망. '밭(농사일)'과 '농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농사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❸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제1수—원풍>의 중장(~ 일인고)과 <제8수—석>의 종장(~ ᄒᆞ리오)에서 (3) _____ 을/를 사용하고 있다.
- <제6수>는 새벽, <제7수>는 낮, <제8수>는 저녁의 시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지빠귀'가 운다고 하며 새벽이 밝아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 '아히들'에게 '일어나거라', 'ᄒᆞᆫ 그릇 올녀라'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서산에 히 지고 풀 끝에 이슬 난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표현상 특징**

1)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3)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냄.
4)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함.
5) 돈호법,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함.
6)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농사일과 관련된 행동을 함께할 것을 권유함.
7)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선의 이동(원경 ➡ 근경)과 시간의 흐름을 드러냄.

*** 윗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주요 내용
〈제1수 – 원풍〉	서문.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함.
〈제6수 – 신〉	새벽. 밭을 보러 가자고 아이들에게 권유함.
〈제7수 – 오〉	점심. 농부들에게 먹일 점심을 준비함.
〈제8수 – 석〉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낌.

윗글에서 화자는 (4) _____ 에 대한 기원을 드러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가의 일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의 **주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즐거움과 보람'이다.

❖ 정답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이 특강

B01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① 3% ② 2% ③ 8% ④ 9% ⑤ 78%]

① '반어적인 표현'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의 의미와는 반대로 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윗글은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색채어'는 '초록, 빨강'과 같이 빛깔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윗글은 색채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③ 윗글은 자연물을 의인화하지 않았다. 또한 '~ 년풍을 원ᄒᆞ노라', '이 중의 즐거운 뜻을'에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윗글은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나열하지 않았다.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는 가을을 드러내는 '낙엽' 등을 말한다.

⑤ <제6수>의 중장 '일어나거라 아히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제7수>의 중장 '뷔골ᄂᆞᆫ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자꾸나'
<제8수>의 중장 '호미를 둘러 메고 ᄃᆞᆯ 등에 지고 가자꾸나'
➡ 청유형 종결 어미인 '-자꾸나'를 반복하여, 듣는 이에게 농사일과 관련된 행동을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B02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① 2% ② 2% ③ 73% ④ 21% ⑤ 3%]

	선택지	㉠ '밭'	㉡ '농부들'
①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냄.	×	×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함.	×	×
②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줌.	×	×
	화자에게 깨달음을 줌.	×	×
③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임.	○	○
④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룸.	○	○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	×	×
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함.	×	×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임.	×	×

① 화자는 외부와 교감을 하거나 속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② ㉠ '밭'은 농작물이 자라나는 곳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농부들'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있지도 않다.

③ 화자는 풍년을 기원하며 ㉠ '밭'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농사일을 하는 ㉡ '농부들'에게 때맞춰 밥을 먹이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④ ㉠ '밭'과 ㉡ '농부들'은 모두 농사일과 관련되므로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는 대상이다. 그러나 ㉠ '밭'과 ㉡ '농부들'은 모두 화자의 외부에 있는 대상으로,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

⑤ ㉠ '밭'과 ㉡ '농부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화자가 ㉠ '밭'과 ㉡ '농부들'을 본받으려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B03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가), (나) 감상하기

[① 2% ② 5% ③ 73% ④ 6% ⑤ 13%]

<보기>의 내용	윗글에 드러나는 부분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제1수> ~ <제8수>로 구성됨.
<제1수>에서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함.	<제1수—원풍> 이 중의 우국성심은 년풍을 원ᄒᆞ노라
<제6수>부터 <제8수>에서 한해의 시간이 '새벽-낮-저녁'으로 세분화됨.	– <제6수—신>은 '새벽'의 시간대로 일어나 밭을 살피러 가는 모습이 나타남. – <제7수—오>은 '점심'의 시간대로 때에 맞춰 농부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모습이 나타남.
<제6수>부터 <제8수>에서 세분화된 시간과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제시됨.	– <제8수—석>은 '저녁'의 시간대로 밭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남.
<제6수>부터 <제8수>는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함.	대구법, 청유형 종결 어미 등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드러냄.

① <제6수>에서는 새벽이 오자 '지빠귀'가 지저귀면서, 자연물 지빠귀의 모습이 새벽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8수>에서는 저녁이 되자 해가 지면서, 자연물 해의 모습이 저녁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 <제7수>에서 화자는 '보리밥'과 '풀로 끓인 국'을 '제때에' 맞추어 농부들에게 먹이려 한다. 이는 낮에 식사를 챙기는 농가의 일상을 드러낸다.

③ <제8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 메고 ᄃᆞᆯ 등에 지고 가'는 모습 저녁이 되자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세분화된 시간 중 특정 시간대인 '저녁'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또한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④ <제8수>에서 저녁에 난 '이슬'은 <제6수> 새벽에 '밤 ᄉᆞ이 이슬'로 연결되면서 작품 속 시간이 저녁에서 새벽으로 연결되는 자연의 순환에 조응하고 있다.

⑤ <제1수>의 '이 중의'는 뒤에 이어지는 '우국성심'을 강조하고, <제8수>의 '이 중의'는 뒤에 이어지는 '즐거운 뜻'을 강조하여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지문 분석 특강 빈칸 정답 (1) 농부들 (2) 즐거움 (3) 설의법 (4) 풍년

[B04 ~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한 시간 4분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 난다
오며 가며 빈방 안에 다만 한숨이 내 벗이로다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천금주옥(千金珠玉)이 귀 밖이요 세사일부(世事一部) 관계랴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더니 끊어질 줄 어이 알리
조물(造物)이 새우는지* 귀신이 휘짓는지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영녁하니*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일월무정(日月無情) 절로 가니 옥안운빈공로(玉顔雲鬢空老)* 로다
㉡오동야우(梧桐夜雨) 성긴 비에 밤은 어이 더디 가고
녹양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이내 상사(相思) 알으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다
일촌(一村) 굽이 썩어 피어나니 가슴이 답답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랴
피는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사랑겨워 울던 울음 생각하면 목이 멘다
교태겨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이 더욱 섧다
지척동서(咫尺東西) 천리 되어 바라보니 눈이 시고
만첩상사(萬疊相思)*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돋힌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 가랴
산은 어이 고개 지고 물은 어이 소(沼)나 진고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해는 돋아 저문 날에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이슬 같은 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겼는고
바람 불어 궂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나며들며 빈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로다
공방미인독상사(空房美人獨相思)*는 예로부터 이러한가
[A] 혼자 이러한가 남도 아니 이러한가
날 사랑하든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무정(無情)하여 그러는가 유정(有情)하여 이러한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路柳墻花)* 꺾어 쥐고 춘색(春色)으로 다니는가
가는 꿈이 자취 되면 오는 길이 무되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오니
아마도 네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 작자 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 새우는지: 시샘하는지
* 영녁하니: 차차 끊어지니
* 옥안운빈공로: 고운 얼굴과 탐스러운 귀밑머리가 늙어 감.
* 만첩상사: 겹겹이 둘러싸인 그리움
* 공방미인독상사: 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림치는 일
* 노류장화: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 네 정이: 옛정이

고전 시가 독해 공식

❶ 화자: ( ) 중심 대상: ( )
❷ 화자의 상황: ( )
정서, 태도: ( )
❸ 표현상 특징: ( )

B04 ❀❀❀

2014 실시 11월 학평(B) 31(고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46 ~ 47p

B05 ❀❀❀ 2014 실시 11월 학평(B) 32(고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이별로 인한 임의 부재 상황을 탄식하며 상심을 드러낸 여성의 노래이다. 화자는 이별과 그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를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기보다는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와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여성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① '조물(造物)이 새우는지 귀신이 휘짓는지'에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조물'이나 '귀신'과 같은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②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에서 화자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임과 임의 '기별'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③ '교태겨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이 더욱 섧다'에서 화자는 '교태겨워 웃던'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날개 돋힌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 가랴'에서 화자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 '학'을 동일시하여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⑤ '날 사랑하든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에서 화자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가 '남'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임을 원망하고 있다.

B06 ❀❀❀ 2014 실시 11월 학평(B) 33(고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와 대상을 단절시키고, ㉡은 화자와 대상을 매개한다.
② ㉠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③ ㉠은 화자에게 심정적 위안을 주고,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한다.
⑤ ㉠과 ㉡은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B07 ~ 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한 시간 5분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
인연(因緣)을 긋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돌이켜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A]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가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백마금편: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 약수: 전설에 등장하는 강.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F 어휘 + 개념어 TEST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20]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제정하다　일없다　양상　생면부지　귀천
지연하다　생동감　횡행하다　회한　비로소
호응　상반되다　취하다　고심하다　당도하다
착잡하다　흔쾌하다　주최하다　지정되다　대처하다

01 기쁘고 유쾌하다. (　　)

02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다. (　　)

03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 (　　)

04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　　)

05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따위에 대답하거나 응함. (　　)

06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 (　　)

07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　　)

08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　　)

09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　　)

10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게 되다. (　　)

11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　　)

12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 (　　)

13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열다. (　　)

14 뉘우치고 한탄함. (　　)

15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다. (　　)

16 어떤 곳에 다다르다. (　　)

17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 (　　)

18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

19 가리켜져 확실하게 정해지다. (　　)

20 신분이나 일 따위의 귀함과 천함 (　　)

* 헷갈리는 의미 정확히 알기

[21-40] 다음의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21 일이 끝나기 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르다. (선불하다, 후불하다)

22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다. (동정하다, 동경하다)

23 공간이 좁고 작다. (협력하다, 협소하다)

24 같이 사업을 하다. (동업하다, 동참하다)

25 약간 움직임 (미동, 역동)

26 사람을 골라서 씀. (남용, 채용)

27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 (역전, 역모)

28 매우 흔함. (지천, 지체)

29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고통, 심통)

30 더러워진 이름이나 명예 (오명, 오인)

31 차나 배 따위가 뒤집힘. (전출, 전복)

32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위로, 위조)

33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 (수행하다, 수선하다)

34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간간이, 근근이)

35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다. (경화되다, 심화되다)

36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시선)

37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누수, 누명)

38 어리석고 고지식하다. (듬직하다, 우직하다)

39 일정한 한도가 정하여지거나 그 한도가 초과되어 못하게 막히다. (제한되다, 제약되다)

40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지장, 화장)

* 문맥에 맞는 어휘 활용하기

[41-5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문맥에 맞게 쓰시오.

〈보기〉

전환되다 일체 묵살하다 신뢰하다 서먹서먹하다
대조하다 단출하다 결백하다 백주 순응하다
일가견 연행하다 늑장 흥정하다 의구심

41 그는 자신이 ( )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42 사건은 ( )의 대로에서 일어났다.

43 해외 파견을 가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 )의 물건이 제공된다.

44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의 사진과 내 얼굴을 ( )하는 시간이 길었다.

45 현실에 ( )하여 아침부터 정해진 일과에 따르고 있다.

46 오랜만에 만난 사촌과 ( )하여 한동안 대화가 없었다.

47 그는 복지 정책에 ( )이/가 있다.

48 그의 해명에 ( )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49 시장에서 상인과 물건 값을 ( )하였다.

50 어머니는 아버지를 굳게 ( )하고 계신다.

51 쉬는 시간 이후에는 분위기가 ( )되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52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을 경찰서로 ( ) 하였다.

53 이번 여행은 기간이 짧아 ( )하게 떠나기로 했다.

54 동생이 ( )을/를 부려 기차를 놓쳤다.

55 사장은 연봉 인상에 대한 나의 의견을 ( )하였다.

*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56 〈보기〉의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옷에는 보호 기능과 표현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옷에서 바랄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기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복으로 사원들 간에 일체감을 조성해서 회사를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고 그러시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단결력보다는 제복에 눌려서 개성이 ㉠ 위축되고 단결력에 밀려서 자유로운 창의력이 퇴보되는 데서 오는 손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① 눌리고 ② 조성되고 ③ 대응되고
④ 순응되고 ⑤ 연행되고

* 개념어 이해하기

[57-58] 서로 관련되는 〈보기〉의 용어와 예시를 연결하시오.

〈보기〉

ㄱ. 암시: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장치
ㄴ. 복선: 사건의 필연성을 위해 마련한 장치

57 머리에 인 방구리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때는 초보였다. 그렇게 방구리로 물을 길어 가는데 저만치서 만득이가 오는 게 보였다. 만득이는 방구리를 들어 주려고 급히 달려오고 그걸 본 곱단이는 에구머니나, 흘러내린 치마말기를 치켜올리려고 급히 방구리 손잡이를 놓아버린 것이다. 방구리가 깨진 건 말할 것도 없다. ……

( )

58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 갓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 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 버렸다. ……

( )

[정답]

01 흔쾌하다 02 제정하다 03 대처하다 04 생면부지 05 호응 06 취하다 07 착잡하다 08 일없다 09 고심하다 10 상반되다 11 생동감 12 지연하다 13 주최하다 14 회한 15 횡행하다 16 당도하다 17 비로소 18 양상 19 지정되다 20 귀천 21 선불하다 22 동정하다 23 협소하다 24 동업하다 25 미동 26 채용 27 역모 28 지천 29 심통 30 오명 31 전복 32 위조 33 수행하다 34 간간이 35 심화되다 36 시종 37 누명 38 우직하다 39 제한되다 40 지장 41 결백 42 백주 43 일체 44 대조 45 순응 46 서먹서먹 47 일가견 48 의구심 49 흥정 50 신뢰 51 전환 52 연행 53 단출 54 늑장 55 묵살 56 ① 57 ㄴ(복선) 58 ㄱ(암시)

Special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헷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ㄱ

가관 [可 옳을 가 觀 볼 관]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

가담 [加 더할 가 擔 멜 담]**하다**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예 적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다.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가정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

각별 [各 각각 각 別 다를 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예 이 물건은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인 [刻 새길 각 印 도장 인]**되다**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

간간 [間 사이 간 間 사이 간]**이**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간신 [艱 어려울 간 辛 매울 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초로 (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 (暮雲)이 지나갈 제
> 죽림 (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섧다
>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
> – 허난설헌, 〈규원가〉

갈기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 등을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때리거나 치다.

감내 [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감복 [感 느낄 감 服 입을 복]**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감흥 [感 느낄 감 興 일어날 흥]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강조 [强 강할 강 調 고를 조]**하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

강행 [强 강할 강 行 다닐 행]**하다**
강제로 시행하다.

강호 [江 강 강 湖 호수 호]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강화 [强 강할 강 化 될 화]**하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

개입 [介 끼일 개 入 들 입]**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

개진 [開 열 개 陳 늘어놓을 진]**하다**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예 발표자가 **개진하고** 있는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개키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예 자고 일어난 자리의 이불을 잘 **개켜서** 치워 두었다.

개통 [開 열 개 通 통할 통]**되다**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객관적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객지 [客 손님 객 地 땅 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거나하다
술 따위에 취한 정도가 어지간하다.

거동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거북하다
몸이 찌뿌드드하고 괴로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

거사 [擧 들 거 事 일 사]
큰일을 일으킴.

거처 [去 갈 거 處 곳 처]
이미 갔거나 현재 가거나 미래에 갈 곳

거처 [居 살 거 處 곳 처]**하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검거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되다**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억류되다.

격동 [激 과격할 격 動 움직일 동]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또는 그렇게 느낌.

견해 [見 볼 견 解 풀 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 두 사람의 **견해** 차이로 회의가 길어졌다.

결렬 [決 결정할 결 裂 찢을 렬]**되다**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되다.
예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박 [結 맺을 결 縛 묶을 박]**하다**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이어 묶다.

결백 [潔 깨끗할 결 白 흰 백]**하다**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촐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다.

결의 [決 결정할 결 意 뜻 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결핍 [缺 이지러질 결 乏 가난할 핍]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예 그는 식사를 걸러 영양 **결핍**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겸비 [兼 겸할 겸 備 갖출 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예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경계 [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경과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시간이 지나감.

경물 [景 경치 경 物 만물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경외 [敬 공경할 경 畏 두려워할 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경작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하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경합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서로 맞서 겨룸.

경향 [傾 기울 경 向 향할 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계기 [契 맺을 계 機 틀 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계책 [計 꾀할 계 策 꾀 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

고결 [高 높을 고 潔 깨끗할 결]**하다**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

고고 [孤 외로울 고 高 높을 고]**하다**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고봉 [高 높을 고 峯 봉우리 봉]
높은 산봉우리

고수 [固 굳을 고 守 지킬 수]**하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다.
예 그는 10년 째 같은 머리 모양을 **고수**한다.

고심 [苦 괴로울 고 心 마음 심]**하다**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고이다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고조 [高 높을 고 調 고를 조]**되다**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다.

C 70~73

2022 실시 9월 학평 38~41(고2)

(가) 백광홍, 〈관서별곡〉

출제 ❶ 화자, 중심 대상 ❷ 상황, 정서, 태도 ❸ 표현상 특징

❶ ㉠ 관서(關西) 명승지(名勝地)에 왕명(王命)으로 보내시매 (❶ 중심 대상)
❷ 상황: 왕명에 의해 관서 지역으로 여정을 떠나게 됨.
❷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간소한 차림. 화자가 무관임을 알 수 있음.) (□: ❸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정이 드러남. (추보식 구성))
❸ 연조문(延詔門) 나가서 모화고개 넘어드니
❹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❷ 정서: 빨리 임지로 가고 싶음. ❸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명승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임지**: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 ❶~❹행 요약: 왕명을 받아 임지로 떠나는 심정**

❺ 벽제(碧蹄)에 말 갈아 임진(臨津)에 배 건너 천수원(天壽院) 돌아드니
❸ 지명을 제시하여 공간의 이동(화자의 여정)을 속도감 있게 표현함.
❻ 개성(開成)은 망국(亡國)이라 만월대(滿月臺)도 보기 싫다. (고려의 옛 수도) (고려 왕궁의 터)
❷ 정서: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황폐해진 궁궐터를 보고 싶지 않음.
❼ 황주(黃州)는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거졌도다.
❽ ㉡ 석양이 지거늘 채찍으로 재촉해 구현원을 넘어드니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행동을 통해 여정을 서두르는 모습이 드러남.
❾ 생양관(生陽館) 기슭에 버들까지 푸르다.
□: ❸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함. ❸ 색채어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을 묘사함.

*** ❺~❾행 요약: 부임하기까지의 여정**

❿ 재송정(栽松亭)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⓫ 십 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에 엉기었다.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
⓬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畫船)*을 비껴 보니
⓭ 녹의홍상 비껴 앉아 가냘픈 손으로 거문고 짚으며
⓮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채련곡을 부르니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비스듬히 앉아)
⓯ 신선이 연잎 배 타고 옥빛 강으로 내려오는 듯.
⓰ ㉢ 슬프다, 나랏일 신경 쓰이지만 풍경에 어찌하리.
❷ 정서: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함. ❸ 설의적 표현을 활용함.
⓱ 연광정(練光亭) 돌아들어 부벽루(浮碧樓)에 올라가니
⓲ 능라도(綾羅島) 꽃다운 풀과 금수산(錦繡山)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⓳ ㉣ 천 년 평양(平壤)의 태평문물은 어제인 듯하다마는
⓴ 풍월루(風月樓)에 꿈 깨어 칠성문(七星門) 돌아드니
❸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㉑ 단출한 무관 차림에 객흥(客興)* 어떠하냐.
❷ 정서: 단출한 차림에도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흥이 일어남.

〔**녹의홍상**: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이르는 말

*** ⓾~㉑행 요약: 평양에서의 여러 풍경과 감흥**

㉒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건마는
㉓ 백상루(百祥樓)에 올라앉아 청천강 바라보니 (# 화자가 마주한 경치와 이에 대한 흥취를 제시함.)
㉔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❷ 정서: 청천강을 바라보며 경치에 대한 감흥을 느낌.
㉕ 하물며 결승정(決勝亭) 내려와 철옹성(鐵甕城) 돌아드니
㉖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 리에 벌여 있고
㉗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㉘ 사방의 군사 진영(陣營)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에 으뜸이로다.
❷ 태도: 철옹성에서의 아름다운 경관을 예찬함.

*** ㉒~㉘행 요약: 청천강과 철옹성의 아름다운 경관**

㉙ ㉤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다 진 때
❷ 상황: 한가로워 자연경관을 누리려 함. -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남.
㉚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㉛ 약산동대(藥山東臺)*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㉜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❷ 태도: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함.
㉝ 백두산 내린 물이 향로봉 감돌아
㉞ 천 리를 비껴 흘러 대(臺) 앞으로 지나가니 (# [A]: 동적인 자연물(물)의 모습을 '용'에 빗대어 표현함.) [A]
㉟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 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변 경관을 묘사함.
㊱ 형승(形勝)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랴.
❸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❷ 태도: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며 계속해서 풍경을 즐기려는 풍류적 태도를 드러냄.

〔**형승**: 지세나 풍경이 뛰어남. 또는 뛰어난 지세나 풍경

*** ㉙~㊱행 요약: 약산동대에서 바라본 뛰어난 경치**

* **화선**: 주연(酒宴)을 베풀 때에 쓰던 배
* **객흥**: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흥취
* **약산동대**: 평안북도 영변군 약산에 있는 천연의 대(臺), 관서 팔경의 하나

(가) 독해 공식 정답

❶ **화자**: 드러나지 않음. **중심 대상**: 관서 명승지
❷ **상황**: 왕명에 의해 관서 지역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아 여정을 떠나게 됨. 한가로워 자연경관을 누리려 함.
정서: 빨리 임지로 가고 싶음.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황폐해진 궁궐터를 보고 싶지 않음.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함.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흥이 일어남. 청천강을 바라보며 경치에 대한 감흥을 느낌.
태도: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며 계속해서 풍경을 즐기려는 풍류적 태도를 드러냄.
❸ **표현상 특징**
-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정이 드러남.(추보식 구성)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냄.
- 지명을 제시하여 공간의 이동을 속도감 있게 표현함.
-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와 색채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변 경관을 묘사함.

■ **갈래**: 기행 가사 ■ **창작 시기**: 조선 중기
■ **제목의 의미**: '관서(關西)' + '별곡(別曲)'. '관서 지역(평안도)에 대한 노래'라는 의미이다. 글쓴이가 관서 지방을 돌아보며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기록한 글이다.
■ **주제**: 관서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류
■ **이것이 핵심!**: **여정에 따른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여정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왕명에 의해 관서 지역으로 여정을 떠남.	빨리 임지(관서 지역)로 가고 싶음.
부임하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함.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황폐해진 궁궐터를 보고 싶지 않음.
대동강, 부벽루 등 평양의 풍경을 봄.	공적인 임무와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함.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흥이 일어남.
백상루에 올라 청천강을 바라보고, 철옹성에서 경치를 내려다봄.	청천강을 바라보며 경치에 대한 감흥을 느끼고, 철옹성에서의 아름다운 경관을 예찬함.
약산동대에 올라가 경치를 바라봄.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예찬하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자 함.

(나) 임춘, 〈동행기〉

출제 ❶ 중심 대상 ❷ 글쓴이의 생각, 태도 ❸ 서술상 특징

[1] ❶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江東) 지방(❶ 중심 대상)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❷ (# ❷ 생각-강동 지방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음.)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物)을 창조할 때에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터이니, 어찌하여 한 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었다.❸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❹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❷ 생각: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남쪽 지방의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함.)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 [1] 요약: 남쪽 지방을 여행하며 느낀 감흥**

② ❶그런데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명주(溟州)로부터 원주(原州)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❷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❸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니, 완연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 ❹그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남쪽 지방 / 동쪽으로 갔더니: ❸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강동 지방의 특징 / 강동 지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
❷ 생각: 과거에 자신이 본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동 지방의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함.
❷ 태도: 강동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함.

*② 요약: 동쪽(강동) 지방을 여행하며 느낀 감흥

③ ❶죽령(竹嶺)에서 20여 리를 가면 당진(唐津)이라는 물이 있다. ❷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 빛이 난다.❸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❹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 듯 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❺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 같아 움푹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다.❻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밑에 거꾸로 비친다. [B]

❸ 색채어를 활용하여 경관을 묘사함.
❸ 과장법을 활용하여 경관을 묘사함.
❸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경관을 묘사함.
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경관을 묘사함.
[B]: 정적인 자연물(벼랑, 골짜기)을 '요철, 두둑, 굴'에 빗대어 표현함.

❼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❽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石壁)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❾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❿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었다. ⓫어두운 저녁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⓬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에 시(詩)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곳을 떠났다.

❷ 태도: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함.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림.
❷ 태도: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풍류적 태도를 드러냄.

⓭[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 ]: ❸ 산문에 한시를 삽입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화자의 정서를 대조함.
⓮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⓯만리 길 정처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글쓴이 자신을 의미함.
⓰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 바람에 달고 가네]
쓸쓸한 정서를 드러냄.

*③ 요약: 당진의 아름다움을 즐김.

④ ❶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❷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천 냥씩이라도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❸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❹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두었다가 우리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비싼 값을 주면서까지 아름다운 곳을 누리고 싶어 하는 당대 귀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❷ 태도: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함.
강동 지방의 경치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제시됨.

*④ 요약: 알려지지 않은 당진의 아름다움 예찬

⑤ ❶명주(溟州)의 남쪽 재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니, 조그마한 성(城)이 있는데 동산(洞山)이라 한다.❷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❸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 하여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❹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❹ 생각: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함과 슬픔을 느낌.

*⑤ 요약: 동산(조그마한 성)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 독해 공식 정답

❶ **중심 대상**: 강동 지방

❷ **글쓴이의 생각**: 처음에는 강동 지방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남쪽 지방의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함. 동쪽으로 가 본 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동 지방의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함.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함과 슬픔을 느낌.

태도: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풍류적 태도를 드러냄.

❸ **서술상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 색채어, 과장법, 색채 대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경관을 묘사함.
- 산문에 한시를 삽입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화자의 정서를 대조함.

■ **갈래**: 고전 수필 ■ **창작 시기**: 고려 말기

■ **제목의 의미**: '동행(東行)' + '기(記)'. '동쪽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글쓴이가 동쪽(강동) 지방을 여행하면서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기록한 글이다.

■ **주제**: 동쪽(강동) 지방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경관

■ **이것이 핵심!: 기행 문학으로서의 특징**

경(景) (여정, 경치)	정(情) (주관적 정서)	의(議) (평가나 주장)
• 당진의 아름다운 풍경 • '조그마한 성'에서 바라본 풍경	• 당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쓸쓸함의 정서를 느낌. • '조그마한 성'에서 바라본 풍경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과 슬픔을 느낌.	• 강동 지방을 천지를 창조할 때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린 곳이라 예찬함. • 당진을 하늘이 숨겨 둔 곳이라 예찬함.

시 복합 독해 공식 정답

- **공통점**: 여정과 견문, 감상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경관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묘사하며,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남.
- **차이점**: (가)는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나)는 경치에 대한 감흥과 함께 글쓴이의 생각 변화와 시대적 상황이 드러남.

C 70 정답 ④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정답률 7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왕명을 받아 여정을 떠나는 화자의 모습
- ㉡: 석양이 지자 말을 재촉해 서두르는 화자의 모습
- ㉢: 공적인 임무와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
- ㉣: 과거의 융성했던 평양을 떠올리며 단출한 차림에도 나그네의 흥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
- ㉤: 다스리는 지역이 한가로워 자연경관을 즐기려 하는 화자의 모습

오답 정답 ?

④ **㉣: 풍경을 과장되게 묘사하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 드러나지 않음.

* **근거**: (가) ⓳~㉑

㉣에서 풍경을 과장되게 묘사하거나 자신의 지난 삶을 뉘우치고 한탄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화자는 평양의 명승지를 돌아보고 과거의 융성했던 평양을 떠올리면서 단출한 차림에도 나그네의 흥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오답 ?

① **㉠: 자신이 맡은 직분이 왕명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왕명으로 관서 지역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음.

* **근거**: (가) ❶, ❷, ❹

㉠에서 화자는 임금의 명으로 관서 지역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게 되어 행장을 꾸려 임지로 떠나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행동을 제시하여 여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해가 져서 채찍으로 말을 재촉하며 여정을 서두름.)

* 근거: (가) ❽

㉡에서는 석양이 지는 시간적인 배경과 말을 채찍질하여 재촉하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여정을 서두르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풍경에 어찌하리.' / 나랏일과 풍경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함.)

* 근거: (가) ⓰

㉢에서는 '풍경에 어찌하리.'와 같이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나랏일이 신경 쓰이지만 풍경도 좋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왕명을 따르는 것과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의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⑤ ㉤: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자연물을 언급한 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배꽃', '진달래꽃' /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 함.)

* 근거: (가) ㉙~㉛

㉤에서는 '배꽃'과 '진달래꽃'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자연물을 언급한 후 화자가 다스리는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약산동대에 올라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C 71 정답 ③ *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9% ② 14% ③ 55% ④ 17% ⑤ 5%]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 틀렸나?

지문에 제시된 세세한 내용의 일치 여부를 묻고 있다. 선택지에 제시된 부분뿐만 아니라, 제시된 부분의 앞뒤 내용까지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오! 정답?

③ 과거에 자신이 다니며 보던 곳과 비교하여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의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 다니며 ~ 겨룰 수가 없었다.')

* 근거: (나) ②-❷, ❸

글쓴이는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꼴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이 다니며 보던 '남쪽 지방'과 비교하여 '동쪽' 지역의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의 풍경이 더 아름답다는 감흥을 드러낸 것이다.

오! 오답?

① '산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동 지방'을 여행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 근거: (나) ①-❶, ❸, ②-❶

글쓴이는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을 실컷 보았고 이후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 지방'을 여행하게 된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남쪽 지방'의 경치를 '강동 지방'에 비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남쪽 지방'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음.)

(나) ①-❹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나) ②-❷ 그런데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명주(溟州)로부터 원주(原州)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글쓴이는 '남쪽 지방'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강동 지방'에 비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④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 근거: (나) ③-❽~⓬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워 '당진'의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배 안에서 하루 종일 만족스럽게 논 후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매력 오답 글쓴이가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을 감상하지 못하고 떠나와야 하는 상황을 아쉬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③에는 글쓴이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서울 부근'의 경치를 언급하며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과의 갈등이 여행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 근거: (나) ④-❷~❹

글쓴이는 강동 지역이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이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과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C 72 정답 ④ *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4% ② 24% ③ 8% ④ 42% ⑤ 2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 틀렸나?

선택지에 제시된 개념어를 모르고, 개념어가 쓰인 부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어가 나오면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때 제시된 작품을 활용하여 개념어의 예시까지 정리해 두면 좋다.

오! 정답?

④ [A]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B]는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백두산 내린 물'을 '늙은 용'에 빗댐. / '벼랑과 골짜기'를 '요철', '두둑', '굴'에 빗댐.)

* 근거: (가) ①-㉝~㉟, (나) ③-❺

[A]는 '백두산 내린 물'이라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늙은 용'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B]는 '벼랑과 골짜기'라는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요철', '두둑', '굴'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동적**: 움직이는 성격의 것 **정적**: 정지 상태에 있는 것

오! 오답?

① [A]와 [B]는 모두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A]에는 약산동대에서 바라본 정경이 드러나 있고, [B]에는 당진 주변의 경관이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A]와 [B] 모두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겨움을 나타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A]와 [B]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매력 오답 '감정 이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다.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불어넣어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어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개념어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③ [A]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B]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함. / 드러나지 않음.)

[A]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에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하고 있지만, 화자가 자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A]는 지상에서 하늘로, [B]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함.)

화자와 글쓴이가 각각 [A]와 [B]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서술하고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하늘 → 물이 흐르는 모습

[B]: 자갈 → 수면과 물고기 → 산, 벼랑, 골짜기

즉 [A]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시선을 이동하였고,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였다.

C 73 정답 ③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1등급 대비

[① 9% ② 12% ③ 51% ④ 19% 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 나타나는 요소인 경과 정, 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장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가):** 관서 지방을 여행하면서 본 아름다운 경관과 이에 대한 화자의 감흥,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습니다.
- **(나):** 동쪽 지방(강동 지방)을 여행하면서 본 아름다운 경관과 그곳에서 느낀 글쓴이의 감흥,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 나타나는 요소인 경, 정, 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가)와 (나)에 드러난 장면을 잘못 이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보기 〉

❶다양한 공간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행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서 각각의 장면은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景)과 경치에서 촉발된 흥취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인 정(情),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議)의 반복을 통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❷이때 작가의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과 '의'를 생략하기도 한다.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 드러난 요소 ① /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 드러난 요소 ② /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 드러난 요소 ③)

오답 틀렸나?

〈보기〉에 제시된 '경(景)', '정(情)', '의(議)'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문과 연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 **경(景):** 여정, 경치 제시
- **정(情):** 경치를 보고 느끼는 감정 제시
- **의(議):** 경치에 대한 평가, 해석, 주장 제시

특히 '정(情)'은 경치를 보고 느낀 감정(즐거움, 만족감 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의(議)'는 경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생각을 덧붙이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답 정답?

③ (나)의 '시 한 편'에 담긴 정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정'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아름다운 당진의 경치와 대조되는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냄.)

＊근거: (나) ③-⑬~⑯, 〈보기〉 ❶문장

(나)의 '시 한 편'에는 배 위에서 바라본 '당진'의 아름다운 경치(경(景))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치와 대조되는 화자의 쓸쓸함의 정서(정(情))가 담겨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오답?

① (가)에서 '벽제'와 '임진', '천수원'을 언급할 때 '정'과 '의'를 생략하고 '경'만 제시한 것은 화자의 여행 경험을 속도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벽제', '임진', '천수원'이라는 여정(경(景))만을 제시함.)

＊근거: (가) ❺, 〈보기〉 ❶, ❷문장

〈보기〉에서는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과 '의'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의 '벽제에 말 갈아 임진에 배 건너 천수원 돌아드니'는 '벽제', '임진', '천수원' 등의 지명을 중심으로 공간의 이동 즉 여정(경(景))만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여행 경험을 속도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청천강'을 바라보며 '장하기도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여행 과정에서 화자가 마주한 '경'과 이에 대한 '정'이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청천강'에서 바라본 경치와 이에 대한 감흥이 연결되고 있음.)

＊근거: (가) ㉓, ㉔, 〈보기〉 ❶문장

〈보기〉에서는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서 각각의 장면은 경(景), 정(情), 의(議)의 반복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가)의 '백상루에 올라앉아 청천강 바라보니 /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는 화자가 '백상루'에 올라가 바라본 '청천강'의 경치인 '경(景)'과 이에서 느낀 '장하기도 끝이 없다'는 감흥, 즉 '정(情)'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④ (나)의 글쓴이가 강동 지방에 대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둔 곳이라 말하는 것은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는 '의'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강동 지방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드러남.)

＊근거: (나) ④-❹, 〈보기〉 ❶문장

(나)에서 글쓴이가 강동 지방을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고 표현하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둔 곳이라 말하는 것은 강동 지방의 경치에 대해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글쓴이의 평가, 즉 '의(議)'가 드러난 것이다.

매력 오답 어떠한 서술이 '의(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작가의 평가, 주장이 드러나면 '의(議)'가 된다.

강동 지방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둔 곳이라고 말한 것은, 강동 지방에 대한 작가의 주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⑤ (나)의 '조그마한 성'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쓴이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한 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을 유발하는 '경'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촌락의 쓸쓸한 모습(경(景))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정(情))을 느낌.)

＊근거: (나) ⑤, 〈보기〉 ❶문장

(나)에서 글쓴이는 '조그마한 성'에서 바라본 촌락의 쓸쓸한 모습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 슬픔을 느낀다.

이를 참고할 때 글쓴이가 '조그마한 성'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쓴이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한 감상이라는 '정(情)'을 유발하는 '경(景)'에 해당한다.





E 고전 소설

E 01~04

2023 실시 3월 학평 39~42(고2)

∗ 김시습, 〈이생규장전〉

출제 ❶ 중심인물, 배경 ❷ 중심 사건, 갈등 ❸ 서술상 특징
❸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1] ❶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다.
❶ 중심 인물 ❶ 중심 인물
❷"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❸ 인물이 옛 성인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 ]: 이생이 최씨에게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함.
❸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❹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 주었다.
이생이 제시한 '유교적 도리'에 수긍함

∗[1] 요약: 이생이 자식된 도리를 근거로 들며 집으로 돌아감.

[2] ❶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❸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상황을 강조함.
❷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❸"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❹그런데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 ]: 이생 부친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나타남.
❸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인물의 태도를 강조함.
❺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❻이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❼또 만일 그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네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❽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 ❾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❿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이생이 밤에 집을 나가 다른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일
[ ]: ❷ 중심 사건: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울주로 쫓아냄.
⓫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인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의
경박하다: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2] 요약: 이생 부친이 밤마다 최씨와 만난 이생을 고향으로 쫓아버림.

[3] ❶최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❷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❸[최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❶ 공간적 배경
아버지에 의해 고향인 울주로 쫓겨났으므로
❹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❺"이 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❻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❼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❽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 ]: 최씨는 향아를 통해 이생의 행방을 알게 됨.
[ ]: ❷ 중심 사건 – 최씨가 이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병이 깊어짐.

∗[3] 요약: 최씨는 이생을 그리워하다 병이 남.

[4] ❶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❷그러던 중 [최씨의 부모가 딸의 글
이생과의 사랑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음.
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❸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 ]: 최씨 부부가 딸이 병에 든 이유를 알게 됨.
❹"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❺그러고는 딸에게 물었다. /❻"이생이 누구냐?"
❼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❽그녀는
부모가 이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❾[아버님, 어머님, 길러 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 ]: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최씨의 모습이 나타남.
❿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⓫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인정과 도리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 ]: ❸ 옛 문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⓬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자신이 이생과 사랑에 빠진 사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⓭[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
[ ]: ❸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서 살듯 벌써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원나라 때 왕 서생이 위당에 갔다가 위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 부부가 된 이야기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⓮그러나 저 신의 없는 도련님이 한 번
이생을 가리킴.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 갈래로 생겨났습니다.] ⓯여리
진나라 때 가충의 딸이 연인을 위해 집안의 향을 훔친 고사
디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
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 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⓰장
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⓱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생과 혼인하는 것
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
죽음까지 불사하며 자신의 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함.
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⓲[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
[ ]: ❷ 중심 사건 - 최씨가 이생과의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세움.
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⓳이에 최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⓴[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 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㉑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 ]: 딸의 뜻을 존중하고 딸을 걱정하는 최씨 부부의 모습이 나타남.
: ❸ 이생과 최씨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매쟁이가 전한 말을 통해 전개됨.
[ ]: 최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이생의 집으로 중매쟁이를 보냄.

화답하다: 시(詩)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하다.
정리: 인정과 도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4] 요약: 최씨가 부모에게 이생과의 혼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세움.

[5] ❶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
❷"[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 ]: 이생의 구체적인 행동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 ]: 이생에 대한 이생 부친의 주관적인 판단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 ]: 이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이생 부친은 이생의 혼인을 서두를 생각이 없음. [A]
❷ 갈등: 혼인을 둘러싼 이생 부친과 최씨 부친의 외적 갈등
❸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이생 부친과 최씨 부친의 말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❹"[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 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 ]: 이생에 대한 주변의 좋은 평판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 ]: 이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 ]: 최씨 부친이 원하는 것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씨 부친은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함. [B]

❺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❻[“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 ]: 이생 부친의 가문이 한미한 이유
[ ]: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이 최씨 가문에 비해 가난하고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함.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❼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고하자 최씨 부친이 말하였다.

❽“납채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생 집안의 살림이 궁색하다는 것을 배려함.
혼인을 할 날짜

❾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고하였다.

❿[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⓫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 ]: ❷ 중심 사건 – 최씨 부친이 이생 부친을 설득하여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성사시킴.
이생은 최씨와의 혼인에 크게 기뻐함.

풍모: 풍채(風采)와 용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귀댁: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편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납채: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⑤ 요약: 최씨 부친의 노력으로 이생과 최씨가 혼인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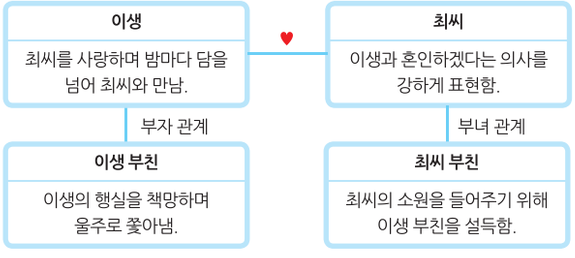
독해 공식

❶ **중심인물**: 이생, 최씨, 이생 부친, 최씨 부친
공간적 배경: 최씨 집(화원), 이생 집

❷ **중심 사건**: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울주로 쫓아냄. 최씨가 이생과의 혼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세움. 최씨 부친이 이생 부친을 설득하여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성사시킴.
갈등: 혼인을 둘러싼 이생 부친과 최씨 부친의 외적 갈등

❸ **서술상 특징**
- **서술자**: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 인물이 옛 성인의 말, 문헌,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인물의 태도 및 사건의 상황을 강조함.
- 이생과 최씨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물이 전한 말을 통해 전개됨.

■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 **글쓴이**: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조선 전기의 학자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하였다.
■ **제목의 의미**: ‘오얏 이(李)+ 날 생(生)+엿볼 규(窺)+담 장(牆)+ 전할 전(傳)’,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라는 뜻으로, 이생이 담장 안의 최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 **이 작품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 점,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통해 혼인이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 **주제**: 이생과 최씨의 사랑
■ **인물 관계도**



■ **이것이 핵심!**: 사랑을 쟁취하려는 최씨의 적극적인 의지

이생과 최씨의 이별
이생은 부친의 말에 순응하며 울주로 내려감.
→
이생과 최씨의 혼인
최씨는 부모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이생과의 혼인을 이루어냄.

■ **전체 줄거리**: 송도에 사는 이생(李生)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인 최랑을 보게 된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시를 주고받고, 이생이 밤마다 담을 넘어 최랑과 만남을 갖는다. 그러나 이생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생 부친이 이생을 고향인 울주로 쫓아버리고, 최랑은 이생과 만나지 못해 병에 걸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랑의 부모는 이생 부모를 설득하여 이생과 최랑을 혼인시킨다.
그 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생은 간신히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최랑은 정조를 지키다가 끝내 홍건적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난이 평정된 후 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황폐화된 집에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슬픔에 잠긴다. 그러던 중, 죽은 아내의 환신이 돌아오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린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최랑은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장사 지내 줄 것을 부탁하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 이생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 주고, 곧 병이 들어 죽는다. (: 지문 수록 부분)

E 01 정답 ③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 [정답률 6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 정답 ?

③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한다.
최씨 가문 / 자신의 가문

⑤-❺, ❻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

이생 부친은 중매쟁이를 통해 최씨 가문에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삼위로 삼으려’ 하냐고 묻고 있는데, ‘한미한 선비’란 자신의 아들인 이생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문은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최씨 가문에 비해 자신의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답 오답 ?

① 이생은 집안에서 최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기뻐한다.
최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는 질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

⑤-❽~⓫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씨 집안에서는 ~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② 향아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알린다.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감.

③-❽~❻ 최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다 보다고 생각하여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④ 최씨는 이생과의 만남을 부모에게 숨기다가 끝내 사실대로 고백한다.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숨김.

④-❶~❽ 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이생이 누구냐?” / 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⑤ 최씨 부친은 최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중매쟁이를 이생 집에 보낸다.
이생과 혼인하겠다는 것

④-⓲~⓴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최씨의 부모도 ~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E 02 정답 ④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정답률 7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 정답 ?

④ ㉣은 최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최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최씨가 초췌해진 것은 ㉤ 이후의 일임.
일어나지 않음.

> ③-❶, ❽ 최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은 최씨가 이생을 기다린 시간이 저녁이며, 이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씨가 초췌해진 것은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이다. ㉤에서 최씨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오답 ?

① ㉠은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는 한편,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이생을 영남으로 쫓아냄.

> ②-❶~❿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

㉠은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밤마다 반복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생 부친이 이생이 밤마다 밖에 나가 새벽에야 돌아오는 행실을 문제 삼아 이생을 영남으로 쫓아내고 있으므로, 이는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② ㉡은 이생이 집에 돌아오는 시점을 특정하면서, 이생이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침에 집을 나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저녁에 돌아오는 것

> ②-❸~❹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은 이생이 최씨와 만난 후 집에 돌아오는 시점이 새벽임을 의미한다. 이생 부친은 이생이 아침에 집을 나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저녁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생이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은 이생 부친의 단호함을 함축하는 한편, 이생과 최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별

> ②-❾~❿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은 이생이 영남으로 떠나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생의 잘못에 대한 이생 부친의 단호한 처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앞으로 이생과 최씨가 '이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생이 지금 당장 영남으로 떠나면 더 이상 최씨와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은 이생과 최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드러내면서, 최씨가 느끼는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다.
최씨가 이생을 간절히 그리워함.

> ③-❶~❽ 최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은 최씨가 꽤 오랫동안 이생을 기다렸으며 이생과 최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몇 달 동안이나 이생을 기다리면서 최씨가 느꼈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다.

E 03 정답 ②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4% ②40% ③32% ④11% ⑤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 틀렸나?

최씨 부친은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어찌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최씨 부친의 말이 비유적 표현이다 보니,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오답 정답 ?

② [A]와 [B]는 모두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이생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 ⑤-❷ [A]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 ⑤-❹ [B]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 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는 이생이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세상을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며,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서둘러 시킬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B]도 이생이 연못 속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속히 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이생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각자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오답 ?

① [A]와 [B]는 모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언급하지 않음.

[A]는 이생이 잠시 바람이 났었다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상대를 회유하고 있지 않다.

[B]는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보이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언급할 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A]는 자신에게 ~~지간이 더 필요~~하다며, [B]는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함을 요구하지 않음.

[A]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B]는 서둘러 혼인을 시킬 의사가 없다는 상대에게 속히 좋은 날을 정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매력 오답 [A]에서 이생 부친은 현재 이생을 혼사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혼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④ [A]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며, [B]는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A]는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서둘러 시킬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B]는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속히 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A]는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내세우며, [B]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개인의 판단 이생

[A]는 이생에 대한 이생 부친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이생에 대한 평판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고 있을 뿐, 상대에게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B]는 이생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이생과 최씨의 혼인이라는 제안에 응할 것을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E 04 정답 ④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1등급 대비

[① 5% ② 5% ③ 14% ④ 59% 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❶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❷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의 외부에 위치하여,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❸이들은 담장의 제약에 일차적으로 순응하지만,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타개한다.

[ ]: 이생이 담장을 넘어 최씨를 만남으로써 담장의 제약을 극복함.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함. 이생 부친 성인의 말씀
혼인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으려 함.

단서+해결

단서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① 물리적 담장 ② 규범적 담장

발상 이생은 물리적 담장을 넘고, 최씨는 규범적 담장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해결 최씨가 '혼인'을 주장하는 것이 규범적 담장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정답 ?

④ 최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로 규정하며 '혼기'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한 것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했기 때문이겠군.

최씨는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 사랑을 유지하려 함.

④-⑩~⑪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

〈보기〉 ❷~❸문장 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의 외부에 위치하여 ~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타개한다.

최씨가 '혼기'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하며, 이생과의 혼인을 주장한다.

이는 규범적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 상황을 타개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오답 ?

① 이생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언급하며 다시 '담을 넘어 돌아가'는 것은, 최씨와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겠군.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옛말'

①-❷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소. ~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보기〉 ❷문장 이들의 사랑은 ~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양함을 드러낸다.

이생은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담장을 넘어 돌아가려 한다.

〈보기〉에 따르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는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것으로, 이생이 최씨와 머무르며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아들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하는 이생 부친은,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옹호하지 않는 인물

②-❺, ❻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보기〉 ❷문장 이들의 사랑은 ~ 주변 인물 ~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이생 부친은 최씨 집 담장을 넘어 정을 통하는 아들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옹호하지 않는 이생 부친은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생의 모습과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최씨의 모습은, 규범적 질서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자신들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함.

②-❾, ⓫ "~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④-❶ " 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생은 영남으로 떠나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씨도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의 물음에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생과 최씨는 각각의 부모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⑤ 최씨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며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둘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범위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랑을 인정 받으려 함.

④-⑰, ⑱ 부모님께서 저의 ~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보기〉 ❸문장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타개한다.

최씨는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둘의 사랑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 즉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범위 내로 자신들의 사랑을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력 오답 '혼인'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므로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이생과 최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사랑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최씨가 혼인을 하려는 목적은 자신들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 내로 진입시키려는 것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